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다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고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이끌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하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소년 지도에 관한 연구와 지도자 양성은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지난 1991년 11월7일 국내 최초로 청소년지도학과가 신설됐다. 바로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다.

Written by 김미현 Photo by 이수연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9세부터 24세까지를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이 청소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은 21세기 들어서부터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청소년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발생 건수가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웃돌거나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 우울증, 집단폭력 등의 문제에서 점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016년 학과 설립 25주년을 맞은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는 청소년들의 창조적 문화감성을 함양하고, 수련과 봉사를 통한 자발적 창의성을 계발하며, 국제화 시대 선도적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도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와 장점을 묻는 질문에 박대권 학과장은 “최초이기 때문에 뿌리부터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또 청소년지도를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정책뿐만 아니라 심리, 활동, 교육통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 교수진이 지도하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폭 넓은 주제연구와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도 활성화 되어 있고요.”

‘최초’에서 ‘최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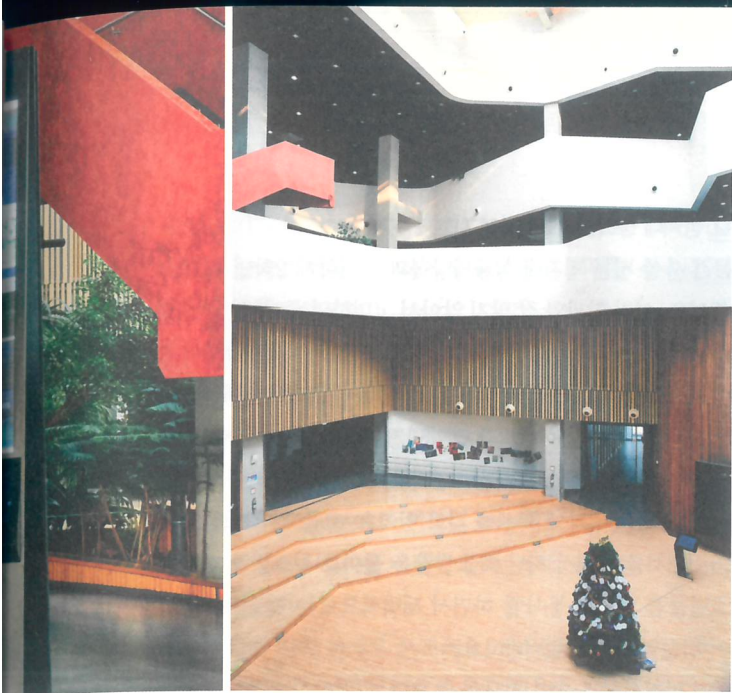
출발은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했지만 지금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에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는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먼저 학과 설립 4년 만에 교육성적을 인정받아 9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받는가 하면,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인문캠퍼스 최우수학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러 청소년 단체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동문들도 청소년지도

학과가 최고로 꼽히는데 한 몫 했다. 마지막 이유는 남다른 커리큘럼이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에 입학해 4학년까지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재학생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정도로 튼튼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박대권 학과장은 “지금까지 900명에 가까운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며 “선후배 관계가 워낙 돈독해 후배들을 많이 이끌어준다는 점도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학년 때는 청소년지도학의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을 익히고 2학년부턴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활동, 청소년지도사례연구, 인적자원개발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등 본격적인 전공학습을 배우게 되는데 전문성함량을 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을 많이 독려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덕·체를 갖춘 인재양성이 목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공무원 준비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문 학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 장기 취업준비생으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공과 무관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을 찾기 어려



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계, 결정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해 학과와 관련된 진로 대부분이 전문 지식과 더불어 봉사, 서비스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편이에요. 때문에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다른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취업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저희 모두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죠.”

마지막으로 박대권 학과장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덕·체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의 공통된 특징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서비스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 마이너리티(minority)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특히 전문가로 성장해 장기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만큼 자신도 잘 돌볼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편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어보니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앞으로도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 눈에 알아보는
청소년지도학과 **Q&A**

● 인재상

- 변화가 빠른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
-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청소년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춘 학생
- 국내를 넘어 해외 청소년들도 선도하는 글로벌 청소년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 장학제도

- 박명윤장학회장학금
- 학업우수장학금
- 동문회장학금

● 학과 추천도서

- 청소년 감정코칭) 최성애·조벽
<10대들의 사생활> 데이비드윌시
<뭘해도괜찮아> 이남석
<청소년을 위한 인권에세이> 구정화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정재운
<빅보이> 고정욱



박대권 학과장



고은경 학생

students interview

“청소년 관련 다 분야로 진출 가능한 학과”

4학년 고은경, 2학년 송지원 학생



송지원 학생

Q.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에 지원한 이유.

은경 사실 저는 명지대 식품영양학과로 입학해 2학년 때 전과 했어요. 이전 학과와 잘 맞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청소년지도학과 이름만 보고 막연히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죠. 부모님이 학원을 운영하셔서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던 탓에 끌렸던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청소년지도학과가 저한테 가장 잘 맞는 학과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요즘 취업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니 그동안 여러 청소년들을 만나고 봉사를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지원 학창시절에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똑같이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누구는 모범생으로 지내고, 누구는 엇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선생님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해주지 못하는 걸까?’ 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나 청소년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대외활동도 했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명지대를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지도 관련 학과 중에 가장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Q. 우리 학과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은경 선후배간의 교류가 무척 활발해요. 학과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동문 모두에게 연락이 가는데 선배들의 참여율이 꽤 높죠. 또 학과가 오래된 만큼 다 분야에 선배들이 진출해 있어서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 외부활동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은 저마다 원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수집해야 하는데 선배들이

선배들이 꼽는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BEST 3

★ 하나, 선후배 또는 재학생 간 관계가 유기적	★★ 둘, 청소년 관련 다 분야로 진출 가능	★★★ 셋,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가 충분
-------------------------------------	-----------------------------------	--

수시로 기관별 정보를 제공해주 그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어요. 때로는 선배들 덕분에 저희가 외부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얻기도 하고요.

지원 청소년과 관련해 폭넓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 학과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간혹 '청소년지도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수련원 교관, 청소년지도사 등의 진로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죠.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하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진출이 가능해요. 실제 학과 커리큘럼에서도 청소년 심리를 비롯해 문화, 정책, 교육 등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은경 재학생 간의 관계도 돈독해요. 타 학과 대비 소규모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학년별 대표를 두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죠. 또 저희 학과는 내·외부적으로 활동이 많아서 자주 부딪치기 때문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해요. 교수님들이랑 네트워크도 잘 이뤄지고요.

지원 단순히 공부를 하고 취업준비에만 집중하는 대학생이 아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여러 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각 연령층에 맞게 활동을 기획, 준비하고 실행하다보면 정말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어린 친구들과 오래 지내다보면 가끔 젊어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웃음)

Q. 경험해 본 학과 관련 외부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은경 모든 계층에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활동의 종류나 참여 대상은 가리지 않았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년 전에 멘토로 참여했던 청소년 캠프예요. 장기 캠프였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가 적응을 못해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관계형성을 못한 탓이라고 치부했는데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매회 일정이 끝나면 다른 멘토들과 그날그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더 이상의 낙오는 발생하지 않았죠. 모든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캠프라 일정이 끝나고 다른 멘토들과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란 만 9세부터 13세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

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등 4가지 활동영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참여하며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하고 꿈을 찾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인데요. 당시 제 멘토로 온 학생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지도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 학과가 나한테 맞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까지 했을 정도죠. 그래도 마지막에 멘티 친구들이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줘서 뿌듯했어요. 그때 저도 1학년이라 이론이나 실기 모두 미흡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은 당시 위기상황 때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활용해봤는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청소년지도학과에 대한 매력을 다시금 느끼게 됐죠.

Q.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 마디.

은경&지원 청소년 활동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프로그램, 공간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해요. 따라서 본인이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분야를 희망하든지 간에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청소년을 좋아해야 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과 끊임없이 부딪쳐야 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도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일이 적은 청소년 정책 분야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도 청소년을 제대로 알아야만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원 간혹 청소년지도학과는 잘 노는 학생들에게만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어보길 추천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의 심리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거든요. 특히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으니 청소년 심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은경 '내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지도사가 맞을까' 고민이 된다면 학과를 선택하기에 앞서 MNPI(다면적 인성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TCI(기질 및 성격검사) 등 다양한 성향검사를 꼭 해보길 권하고 싶어요. 자신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학과 입학 후 자신의 진로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도 효율적이고요. 📖